

오산 인재개발원 현장 직접 찾은 신동빈 롯데 회장

“인재 육성은 미래 투자… 아끼지 말 것” 당부

진행현황 꼼꼼히 점검… 근무자 격려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2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장에서 진행된 ‘오산캠퍼스 첫삽뜨기’ 행사에 방문해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는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 윤종민 경영전략실장, 정부옥 HR혁신실장, 롯데인재개발원 전영민 원장,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 롯데정보통신 마용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오산캠퍼스 부지 및 주변현황, 부지 내 건물 배치 계획 등을 보고 받고,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터 파기 등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본 뒤,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해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은 결국 롯데 미래에 대한 투자다”며 “오산캠퍼스를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동력을 키워낼 최고의 시설로 꾸미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는 1993년 1월 개원한 아래, 롯데 인재 육성의 중추 시설로 자리 매김했다. 신입사원 교육부터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 직급별 교육, 직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돼 왔다.



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이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린다

기자 수첩

구 서윤
(산업부)

잘못을 했을 때 빠르게 인정하는 게 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 불만을 방지할 경우 신뢰에 치명적이다. 최근 LG전자를 보면 이 교훈을 떠올렸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전화해 건조기 시정권과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를 누가 기사화하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기사화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사 게재를 막아달라는 의미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건조기 논란은 사용자 불만에

서 시작됐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에 탑재된 자동 세척 콘덴서(음축기) 기능으로 인해 내부에 먼지가 쌓이고, 건조된 옷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엘지건조기자동콘덴서 문제점’이란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 커뮤니티 회원은 2일 기준 3만 1600명에 달하고,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자 LG전자는 ‘먼지가 쌓이는 것이 콘

텐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10년 무상보증을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건조기 내에 먼지는 쌓이고 냄새는 나지만 성능이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말은 소비자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LG 건조기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미생물 번식·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건조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응축수와 혼합됨에 따라 오염된 물로 콘덴서 세척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LG전자는 시정권과

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부(약 145만 대)에 대해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도 LG전자는 언론에 언급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문제를 반영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됐지만 회사의 대응방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가 회사의 경영 이념이기도 해서다. 기사가 하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자의 눈을 가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진정한 고객 가치의 실현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닐까.

/yuni2514@

오늘의 운세

9월 3일 (음 8월 5일)



36년생 매사 처음처럼 신중하게. 48년생 말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 60년생 검은 옷 입을 일이 생긴다. 72년생 일이 너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걱정. 84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 더 노력해야 할 터.



37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말자. 49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많으니 겸손하게 처신. 61년생 우물가에서 승승 찾지 말고 순서대로 움직여야. 73년생 꽂았다가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갖자. 85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다.



38년생 좋은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손질해서 뇌라. 50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이순우 법. 62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74년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날. 86년생 작은 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39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일을 시작해도 좋다. 51년생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63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온다 마음이 불편. 75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87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나 불청객이다.



40년생 여행수를 바리다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52년생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64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는 더 어려운 난처하다. 76년생 유혹이 많으니 부디 자중지야하길. 88년생 꽃이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41년생 다행이 생겨도 도와주는 이가 있어서 다행. 53년생 큰일을 맡게 되니 마음이 들뜬다. 65년생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77년생 지나친 간섭은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89년생 신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 건강검진을.



42년생 나이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니 관대한 마음을 지니자. 54년생 믿고 맡기면 좋은 결과. 66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여행을 떠나보자. 78년생 소띠와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90년생 새로 시작하는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



43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존중. 55년생 집념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해낸다. 67년생 양보다 질을 따져서 선택. 79년생 집안이 화기애애하니 비깥일도 마음먹은 대로. 91년생 세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많은 도움을 준다.



44년생 혼자하지 말고 협조자를 구하라. 56년생 사람을 걸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를 하게 된다. 68년생 일어도 모른 척 상대의 실수는 덮어줄 것. 80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92년생 집안청소로 환경을 개선.



45년생 결실이 보이니 강하게 밀어야. 57년생 일의 지체가 느려도 경거망동 하는 것이 현명. 69년생 특별한 아이디어로 주변인의 부러움을 산다. 81년생 화를 다스리지 못해 분란을 일으킨다. 93년생 외모에 신경 쓰다 지울만한는.



46년생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 잠시 멈춰라. 58년생 밭로 뛰는 일을 해야 건강에 좋다. 70년생 중요한 일은 비밀스럽게. 82년생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94년생 지나친 욕심만 버리면 결과가 아름다운 하루.



47년생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59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 나간다. 71년생 같은 땅 같은 씨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른 법. 83년생 이 또한 지나가리니 오늘은 참고 견뎌라. 95년생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텀뿌!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아야 합니다.

2	7	8			9			
6		4		1		5		
4		6			3			
	3	4						
	5		7	2				
	2		7	8		6		
1	3		7	4			2	
4			3	1	7			
5								

			6	4	3			
			8					1
			4	2	5	1	7	
	3		8	6	9			
6				2		8		
8						4		
	6			1				
8	5		3	1	4		7	9
1						5		

9	1	3	6	2	7	8	5	4
8	5	2	3	1	4	6	7	9
7	4	6	5	9	8	1	2	3
2	8	1	7	3	5	9	4	6
5	6	9	1	4	2	3	8	7
4	3	7	8	6	9	5	1	2
3	9	4	2	5	1	7	6	8
6	7	5	4	8	3	2	9	1
1	2	8	9	7	6	4	3	5

문제 제공= **날짜**



김상회의四季

재복이 있어도 경제공부-2

자~ 그런데도 자기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쓰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빌린 돈으로 은행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무관심하며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하락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을 사소하게 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면서 기실 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저 입을 벌리고 감이 딱하고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0.25% 올린다고 해보자. 5억에 만약 80% 대출을 받아 투자한 임대사업자나 주택소유자들의 이자부담은 연 100만원이 늘어난다. 매달 약 83,300원 더 부담이 되는 것이다. 월로 따지니까 10만원 아래이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본인의 소득에 대비해볼 때 본인의 가처분 소득은 최소 5% 정도는 폭락하는 것이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은행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예금이자는 많이 줘야 2% 남짓 주면서 대출 이자는 3%에서 5% 또는 그 이상을 챙긴다. 이를 일러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진율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도 은행 자체에는 쏠쏠한 이득이 남는다. 억장 무너지게 느껴지는 건 나는 꼬박 꼬박 이자 잘 내고 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채무를 절감해준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보았다. 집장만을 할 때도 온전히 내 돈을 다 마련하여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쉽지 않다. 웬만큼은 담보를 끼고 주택을 마련한다. 그런데 일년 동안 이자 잘 내고 신용을 지켰어도 그 다음 해 연장을 하려하면 이자율을 좀 인하해주고 해야 하는데 원금의 일부를 갚지 않으면 오히려 이자율이 더 올라가거나 하는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금융 대출상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